

쑤옌찌아오(이어도) 근원, 고증 및 변천연구(2018)

- 장티엔자오(张天骄), 니에위징(聂玉景)¹⁾

*쑤옌찌아오²⁾(한국명: 이어도)/중한·한중 순서는 원문에 나온 그대로 번역하였음.

1. 서언

쑤옌찌아오(Suyan Reef)는 중국 동중국해와 황해 중간에 위치한 동중국해 대륙붕이 뻗어 나온 부분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다. 쑤옌찌아오의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감안하여 2011년부터 국내 관련 연구가 점점 심화·확대되고 있다. 비교적 대표적인 고차원적 연구사업은 길림대학 귀뢰이(郭锐)가 추축이 되어 진행된 2011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사업 ‘동아시아 환경변화 및 중국 역내 지리전략’, 허난대학 펑동싱(冯东兴)이 주관하여 진행한 2012년 국가 사회과학기금 청년사업 ‘조선전쟁 이후 남겨진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 난통대학 치옌찌옌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사업 ‘쑤옌찌아오해역의 중국인 활동역사연구’ 등이 있다. 중국정부의 국가 해양권익에 대한 관심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시정부급, 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 쑤옌찌아오 근원연구 시정

이렇게 최근 쑤옌찌아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필자는 연구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섬과 암초의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서 수옌찌아오(苏岩礁)를 쑤옌다오(“苏岩岛”다오;섬)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옌홍하이(施彦洪)는 ‘해양의식을 길러 애국심을 함양하자’에는 “일본은 다오위다오(多岛)가 그들의 해양 영토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 쑤옌다오(岛)가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귀진쑤의 ‘동아시아의 섬 전쟁’이라는 글 제5장 제목은 “중한 쑤옌다오 쟁의”이다. 이는 국가의 쑤옌찌아오에 대

1) 본 논문은 중국 교육부의 인문사회과학연구 사업인 ‘쑤옌찌아오(이어도)해역의 중국인 활동역사연구’ 사업의 단계적인 성과임

원문: 苏岩礁考源、考据与变迁(2018)

2) 쑤옌찌아오(苏岩礁): 중국어로 옌찌아오(岩礁)는 암초를, 다오(岛)는 섬을 의미한다.

한 정의와, 중국의 외교 표현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오래 전에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06년 9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타이강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쑤옌찌아오는 중국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다.” 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2012년 3월 12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쑤옌찌아오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고 언급하며 “즉, 해당 암초는 영토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중한 양국간에 영토 쟁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 후 2013년 12월 9일 외교부는 또 “쑤옌찌아오는 고립된 수중 암초로 영토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로 쑤옌찌아오 관련 역사적 근원에 관한 언어 문자 오류이다. 일찍이 천안강의 “쑤옌, 중국의 품에 안다” (이하 간략히 ‘쑤’ 라고 부른다)에서는 수십편의 논문을 반복적으로 옮겨 사용하였다. 그 중 중국 고대 연근해 어민들이 동중국해에서 쑤옌찌아오를 볼 때 신화적인 전설이야기를 생각해 내 동중국해 신선의 산, 동중국해 용궁, 신선이 사는 봉래산 등의 이야기로 후대에 전해졌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봉래산을 대표로 한 신선이 사는 산은 지금까지 보하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여겨져 왔다. ‘사기’에서는 “위, 선, 연 국가들이 사람을 보내 봉래산, 장방산, 삼신산을 찾게 하였는데 그 위치가 보하이에 있어 사람이 가기에 멀지 않았다.” 고 하였다. 또 ‘열자 탕원’에서는 “보하이 동쪽 몇억만리인지 모르는 곳에…그 중 오산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봉래이다” 라고 하였다. 역사지리적으로 소위 고대 보하이의 범위는 지금의 보하이보다 넓었다. 지금의 보하이를 포함하여 동쪽으로 뻗어 나온 해역, 즉 황해 북부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쑤옌찌아오의 지리적 위치는 동중국해 북부인 황해 남단과 가까운 쪽이다. 양자의 비교적 큰 차이를 고려했을 때 봉래산 전설은 쑤옌찌아오의 역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쑤옌찌아오의 명명 유래이다. 그 존재하는 증거에 많은 흠이 있다. 국내 문헌의 관점에 따르면 쑤옌찌아오의 이름은 중국 장쑤성에서 온 것이다. 천안강은 ‘쑤’ 에서 “쑤옌은 장쑤외해의 암석, 암초라는 뜻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처위치는 ‘중한 쑤옌찌아오 문제의 국제 해양법 분석’ 에서 “쑤옌의 의미 그대로 장쑤 외해의 암석이라는 뜻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상하이 사범대학의 장칭레이는 2012년 석사 논문 ‘중한 쑤옌찌아오 쟁의 연구’ 에서 쑤옌찌아오 명칭의 역사는 2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산해경’ 제14권 ‘대황동경’ 문헌에 “동중국해 외…대황중에 이텐쑤원(猗天苏门)이라는 산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쑤산이 바로 쑤옌이고 암석은 고문에

작은 산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중국해에 위치한 칠성암(延)은 칠성산으로 불렸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에서 보면 쑤옌찌아오는 중국 고문에서 B.C 475~221경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논술했다. ‘쑤옌찌아오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입장 분석평가’에서는 ‘산해경 대황동경을’ 다시 인용하여 “연구 결과, 이토허산은 지금의 쑤옌찌아오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장쑤연감’에서 장쑤성 지방지는 “청초에 남경을 없애고 남경의 원래 관할구역에 장쑤성을 만들었다. 강희 6년(1667) 강남성을 장쑤, 안후이 두 성으로 나누고 두 성의 총독부를 남경에 두고 장쑤의 순푸아문(지방행정 관청)은 쑤저우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장쑤성의 시초였고 장닝, 쑤저우 두 도시의 관청 첫 글자의 유래였고 이를 줄여 ‘쑤’ 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장쑤성의 이름은 17세기 중엽에 확정되었지만 산해경은 기원전 475~221년에 책으로 나왔다. 역사유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나라 이전의 작가가 불분명한 책이 2000년 이후 청초가 장쑤성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해경 대황동경’의 관련 설명은 쑤옌찌아오의 역사적 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헌중의 쑤먼/쑤산은 지금의 쑤옌찌아오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쑤옌찌아오는 청나라 강희 6년 이전의 고대 문헌속에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것인데 이 구체적인 명칭에 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3. 쑤옌찌아오 고증과 내용 보충

10여년간 국내에서 쑤옌찌아오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부분에서 이미 장족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방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쑤옌찌아오의 연구에서 문자적인 묘사는 많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도나 해도, 고대 문헌 사진은 부족하다. 천안강은 그의 논문 ‘쑤’에서 “청말 민국시기 초기에 지질·지리학적으로 발전한 이후 쑤옌찌아오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즉 이어도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또 그는 이어서 “1880~1890년 중국은 북양 수군(당시 해군)을 만들면서 당시 해도에 동중국해 쑤옌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은 한국보다 100년이나 빠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원라이(溫萊)는 ‘쑤옌찌아오를 영토로 삼고자 하는 한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논술했다. 그러나 상술한 논문의 고증에서 관련 지질학과 지리학자들의 구체적인 서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문헌상에 북양해군의 해도를 삽입하지 않아서 이에 따라 한 고증은 완전하

지 못한 것이 된다. 같은 맥락으로 국내의 수많은 논문은 모두 쑤옌찌아오가 수천년전에 이미 중국 어민에게 발견이 되었다고 서술하며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지금까지 장저 연해에는 쑤옌과 관련된 수많은 민간설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 “수·당시기 이후 일본, 고려는 해로를 통해 중원으로 들어와 사신과 유학생을 바쳤고, 당, 송, 명, 청 시기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중화권 인사들이 쑤옌을 보고 문헌 기록을 남겼다”라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관련 신화나 이야기, 민간설화의 명칭,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고려시대의 고적이 어떻게 쑤옌지아오를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서명,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지 않았다.

뤼레이(吕蕊)의 ‘쑤옌찌아오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입장 분석평가’에서는 “중국 명나라 시기 ‘순풍상송(顺风相送)’에 쑤옌찌아오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고 있다. 순풍상송은 명나라시기 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내용은 풍부한 해상 루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중국 정화가 서쪽 바다로 갈 때 따라갔던 수군이 저자라고들 한다. 그 후 넓게는 항해 상인들이 베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중국인들의 항해로와 그에 따른 산천 지형을 기록한 역사지리 유형의 서적이다. 해당 책은 중일 다편다오 열도의 주권 귀속문제 분쟁 중에 푸젠(중국남부의 무역이 발달한 지역, 지금의 푸젠성)인들이 다편다오 열도에서 이른 시기부터 활동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고려되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물의 흐름과 지형을 관측하여 기록한 것에서 **쑤옌찌아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뤼레이는 논문에서 증거를 열거하지 않았다. 이상의 여러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쑤옌찌아오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

4. 고대 쑤옌찌아오 연구

쑤옌찌아오가 중국 고대 해양 역사에서 해수면 위로 나와 있었는지, ‘고 쑤옌산’의 형식으로 역사속에 존재했었는지는 쟁의의 소지가 있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해양 지질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쑤옌찌아오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쑤옌찌아오의 위치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인데 동중국해 대륙붕 외연의 오키나와 해구는 플리오세기 이후 단절되어 횡인장을 보이고 있고 내부 작용도 굉장히 활발하다. 중국 해양대학의 신리귀는 2005년 그의 논문 ‘동중국해 2만년간의 해침 과정과 해침 시스템 모의 실험과 분석’에서 “오키나와 해구는 중국 대륙과 떨어져 있어 대륙 해안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서북방향과의 거리와는 멀지 않아서 쑤옌찌아오 해역에 어느 정도 밀려들게 된다. 옛 수옌산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해수면 이하로 침강하게 되고 오늘날의 쑤옌찌아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고대 문헌에 옛 쑤옌산과 쑤옌다오(섬)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헌의 어떤 산 혹은 섬인지는 논증이 필요하다. 기상학적 관점으로 보면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해 쑤옌찌아오가 수면 아래 있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오천년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초보 연구’를 보면 중국 대륙의 기온은 주나라 초기, 남북조 시기, 남송명말 시기 이렇게 4번 기온이 크게 내려갔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구과학대사전 기초권’에 따르면 “1451~1881년 300여년간 범지구적인 범위의 한랭기후를 보였고 연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도 정도 낮았다고 한다. 1700년 전후로 한랭기온의 특징이 특히 강하게 보였고 백만년간 보기도문 극단적인 한랭기후를 보였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 중엽 이후 이를 명청 소빙하기 혹은 현대 소빙하기라고 불린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 이후 전 세계 공업화 과정이 가속화 되면서 온실가스는 극지방의 빙하에 영향을 주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비교적 낮았던 고대 농업사회에서는 동중국해 평균 해수면이 지금보다 더 낮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최저 해수면은 지금보다 150~160m정도 낮았다고 한다. 이렇게 지질학적 이유와 기상학적 이유에 따라 고대 청 소빙하기때의 쑤옌찌아오는 해수면 위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다시 추론해 정화가 서역으로 갈 때 옛 쑤옌산의 상류에 비석을 남겼는지(즉 현재 쑤옌찌아오 암초 위에), 항해 표식을 새겼는지에 대해서도 고증되어야 할 새로운 문제이다.

5. 결론

창강 입구의 유일한 초소라고 볼 수 있는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쑤옌찌아오의 소재 해역은 중국의 교통운송, 자원채굴과 국방군사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뢰이는 ‘중한해양권의 갈증문제와 중국의 대응책’에서 “쑤옌찌아오에 관한 연구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중국에 유리한 역사, 지질과 국제법 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를 통해 장기적인 협상과 교섭을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이 쑤옌찌아오를 여러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국가기관과 권위있는 기관에 정책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민중의 해양권익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나 쑤옌찌아오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와 근거, 논증에 오류가 있게 되면 이해에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작은 실수가 큰 잘못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외교 협상중에 발언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 연구하여야 한다.